

#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및 검사강화 방안

*A Plan for Improving Food Inspection Items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from China*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산 식품의 수입 현황을 보면 1995년 대비 2005년에 건수면에서 543.9%포인트, 중량면에서는 808.9%포인트 증가하였고,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전체 수입량이 138.8%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391.9%포인트 증가하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의한 식품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산 수입식품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데 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무작정 기피하기 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산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 항목 및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강화함은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수준의 식품 수입국이다. 식품수입국이 아니라도 이제는 세계 교역의 완전 개방화에 의해 자국 상품만 보호, 육성할 수 없게 되었기에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1998년 식약청 출범 이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변화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2배 이상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을 발판으로 4배 정도 증

가한 실정이다.

수입품에 의한 사고가 다발하다보니 수입품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sup>1)</sup>.

그러나 수입품에 관한 편향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식품수입국으로 현재 섭취하는 열량의 약 50%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은 계속 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품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물류비가 적게 들고, 우리와 기후, 생산조건이 비슷한 중국산 수입식품

은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다. 즉, 안전성이 확보된 중국산 수입품에 관한 차별화된 인식 전환과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 현황을 분석하여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시에 중점적으로 검사할 항목, 항목별 품목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있는 연도별, 월별 수입식품 전산 생자료(law data)이다.

## 3. 식품 수입 현황

### 1) 연도별

식품수입국으로서 지속적인 식품수입이 이루어져왔지만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개방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물량은 건수, 중량, 금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sup>2)</sup>.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DB형태로 보유하고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히 중국산은 저

표 1.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 현황

(단위: 건, kg, USD, %)

구분	중국산 수입량			전체 수입량 대비 중국산 점유 비율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1995	10,393	356,390,084	333,700,827	11.0	3.7	7.3
1996	12,829	441,995,311	501,376,625	12.0	4.4	9.5
1997	15,892	405,901,528	579,335,544	13.7	4.3	10.8
1998	12,433	394,519,159	273,505,376	18.3	4.8	8.7
1999	20,538	679,152,143	413,273,274	19.0	7.0	11.6
2000	27,249	1,409,578,534	597,458,550	20.4	13.6	14.8
2001	31,576	936,710,393	536,653,370	21.4	8.9	12.5
2002	38,556	1,907,515,916	733,877,318	23.1	18.2	15.9
2003	48,591	2,795,965,822	1,660,888,551	26.2	25.1	28.6
2004	58,355	1,700,944,163	1,050,431,553	29.6	14.9	16.2
2005	66,920	3,237,599,023	1,641,358,958	31.1	28.8	21.6
2006	34,839	1,282,286,188	778,144,232	30.0	22.4	22.4

주: 2006년 현황은 6월 말 기준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 수입식품 전산망 DB 분석자료임.

2) 수입식품 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의 3종으로 보따리상 등에 의해 수입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수입된 품목 일 경우에 3종중 1종의 검사를 반드시 거친 후 통관됨.  
또한 통관 후 시장에 유통되는 전 수입품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검사가 실시되어 수입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음.

1) 정기혜 등,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가의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물량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1995년 전체의 11.0%에서 2005년에는 전체의 31.1%를 점유하고 있다.

## 2) 품목별

<표 2>에는 품목별 중국산 수입식품의 검사 건수가 연도별로 제시되어있다<sup>3)</sup>

중국산 수입식품의 전체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품목별로 보면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미미하나마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공식품류는 1995년 46.8%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전체의 58.1%를 점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1%가 채 안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중국산 수입식품의 품목별 검사실적(건수)

(단위: 건, %)

구분	합계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1995	10,393	3,311	31.9	4,862	46.8	734	7.1	1,486	14.3	-	-
1996	12,829	4,937	38.5	5,478	42.7	652	5.1	1,762	13.7	-	-
1997	15,892	5,632	35.4	7,015	44.1	743	4.7	2,502	15.7	-	-
1998	12,433	5,198	41.8	5,473	44.0	739	5.9	1,023	8.2	-	-
1999	20,538	8,332	40.6	9,444	46.0	966	4.7	1,795	8.7	1	0.0
2000	27,249	11,017	40.4	12,160	44.6	1,245	4.6	2,813	10.3	14	0.1
2001	31,576	11,333	35.9	15,681	49.7	1,546	4.9	2,970	9.4	46	0.1
2002	38,556	12,969	33.6	19,348	50.2	1,759	4.6	4,382	11.4	98	0.3
2003	48,591	16,669	34.3	24,435	50.3	2,031	4.2	5,331	11.0	125	0.3
2004	58,355	18,319	31.4	30,139	51.6	2,658	4.6	6,847	11.7	392	0.7
2005	66,920	18,643	27.9	37,070	55.4	2,875	4.3	7,648	11.4	684	1.0
2006.6	34,839	8,095	23.2	20,239	58.1	1,766	5.1	4,452	12.8	287	0.8

주: 검사건수 기준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전산망(행정포털시스템) 전산DB 구축 자료임.

3) 수입식품 검사실적은 건수, 총량, 금액으로 세분화되어 통계가 생산이나 통상 건수실적을 대표 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4. 검사 부적합 현황

### 1) 연도별

<표 3>에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 현황이 연도별로 정리되어있다.

중국산 수입식품의 경우에 1995년 대비 2005년에 건수측면에서 약 3.6배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입량이 1995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과 연계시켜보면 부적합 처분을 받은 물량이 검사물량의 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근에 특히 부적합 처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 품목별

<표 4>에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품목별 부적합 현황과 1995년 대비 증감비가 분석되어있다.

수입식품의 품목별 분류는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5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임·축·수산물의 경우에 1995년 24건에서 2006.6월까지 24건, 2005년 66건으로 2005년 기준으로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공식품은 2005년 206건으로 약 4.8배 증가하였고, 기구 및 용기포장류도 2005년에 2.1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2000년 대비 2005년

표 3.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단위: 건, Ton, 천USD, %)

구분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증감비	중량	증감비	금액	증감비
1995	10,393	356,390	333,701	90	0.0	1,357,017	0.0	1,414,223	0.0
1996	12,829	441,995	501,377	140	55.6	1,949,536	43.7	2,002,494	41.6
1997	15,892	405,902	579,336	96	6.7	1,329,471	-2.0	44,875,290	3073.1
1998	12,433	394,519	273,505	81	-10.0	734,827	-45.8	725,637	-48.7
1999	20,538	679,152	413,273	156	73.3	1,508,314	11.1	1,586,587	12.2
2000	27,249	1,409,579	597,459	230	155.6	2,031,839	49.7	2,263,450	60.0
2001	31,576	936,710	536,653	280	211.1	2,646,424	95.0	2,709,984	91.6
2002	38,556	1,907,516	733,877	250	177.8	1,748,037	28.8	1,769,782	25.1
2003	48,591	2,795,966	1,660,889	338	275.6	3,354,495	147.2	2,763,745	95.4
2004	58,355	1,700,944	1,050,432	325	261.1	2,390,070	76.1	2,498,713	76.7
2005	66,920	3,237,599	1,641,359	320	255.6	2,507,071	84.7	3,246,545	129.6
2006.6	34,839	1,282,286	778,144	137	52.2	1,011,812	-25.4	1,438,883	1.7

주: 1) 2006년 6월 기준자료임.  
2) 증감비는 1995년 대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전산망(행정포털시스템) 전산DB 구축 자료임.

표 4. 중국산 품목별 부적합 현황(1995년 대비)

(단위: 건, %)

구분	합계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1995	90	24	0.0	44	0.0	12	0.0	10	0.0	-	-
1996	140	31	29.2	95	115.9	4	-66.7	10	0.0	-	-
1997	96	24	0.0	62	40.9	7	-41.7	3	-70.0	-	-
1998	81	6	-75.0	61	38.6	5	-58.3	9	-10.0	-	-
1999	156	24	0.0	115	161.4	8	-33.3	9	-10.0	0	-
2000	230	75	212.5	128	190.9	14	16.7	12	20.0	1	0.0
2001	280	93	287.5	175	297.7	6	-50.0	6	-40.0	0	-100.0
2002	250	72	200.0	154	250.0	6	-50.0	16	60.0	2	100.0
2003	338	41	70.8	267	506.8	4	-66.7	25	150.0	1	0.0
2004	325	51	112.5	221	402.3	9	-25.0	20	100.0	24	2,300.
2005	320	66	175.0	206	368.2	12	0.0	21	110.0	15	0
2006.6	137	24	0.0	92	109.1	4	-66.7	10	0.0	7	1,400.0

주: 1) 2006년 현황은 6월 말 기준임.  
2) 증감비는 1995년 대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전산망(행정포털시스템) 전산DB 구축 자료임.

은 24배, 2006. 6월 현재까지도 부적합 처분이 7 배 증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유일하게 식품첨가물은 부적합 처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안전성 수준이 제고되었다기 보다 수입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대분류

<표 5>에는 중국산 수입식품중 부적합 처분을 받은 품목별(대분류) 현황이 연도별로 제시 되어있다.

1995년 이래 가공식품이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도별로 다소 순위에 변화가 있지만 그 다음은 농임축수산물, 3위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 4 순위는 식품첨가물 등의 순이라 할 수 있다.

(2) 중분류

<표 6>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는 품목을 중분류별로 정리되어있다.

지속적으로 1순위는 기타가공품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건포류, 구기자, 건면류, 기구류, 향신료조제품 등이었으며 특히 2005년에는 김치류가 2순위로 기생충 김치사고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 중국산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1995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1996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
1997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1998	가공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
1999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
2000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2001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
2002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3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4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2005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2006.6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 2006년 현황은 6월 말 기준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 수입식품 전산망 DB 분석자료.

표 6. 중국산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1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2	건포류	구기자	기구류	건면류	향신료 조제품	김치류	축산물 가공품
3	황기(단너삼)	무	구기자	기구류	캔디류	기구류	식초절임
4	기구류	건포류	황기(단너삼)/뿌리	향신료 조제품	절임류	축산물 가공품	기구류
5	당귀	당귀/뿌리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향신료 가공품	기구류	식육가공품	식육가공품
6	천연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제외)	향신료조제품	캔디류	절임류	인삼제품	수산물 가공품	영지버섯
7	향신료가공품	식초절임	당귀/뿌리	캔디류	향신료가공품	절임류	절임류
8	향신료 조제품	절임류	절임류	빵또는떡류	인삼/장뇌삼	황기(단너삼)/뿌리	기타음료
9	구기자	향신료 가공품	과실주	추출차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캔디류	김치류
10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당절임	당절임	곡류가공품	어육가공품	향신료 가공품	초콜릿류

주: 부적합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 수입식품 전산망 DB 분석자료임.

3) 사유(코드)별

(2) 농·임·축·수산물

(1) 전체

<표 7>에는 2005년 중국산 수입품의 부적합 사유가 10위까지 정리되어있다. 1순위는 미생물 오염에 의한 부적합으로 즉, 대장균, 대장균 군에 오염되고 그리고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다.

그 다음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기타 규격위반, 그리고 보존료 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에는 농임축수산물의 부적합 사유가 순서별로 정리되어있다.

1순위는 1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 부패변질 등의 원인으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공식품

<표 9>에는 가공식품의 부적합 사유가 10위까지 정리되어있다. 1순위는 미생물 오염, 다음은 기타 규격 위반, 보존료 사용 등 이었으며 총 부적합 건수는 1,607건이었다.

표 7. 중국산 식품의 검사 부적합 원인

(단위: 건, %)

순위	부적합 사유코드 및 내용	건수	비율
1	111 -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식품	534	21.9
2	116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식품	349	14.3
3	118 - 기타 규격 위반-식품	305	12.5
4	112 - 보존료-식품	213	8.7
5	999 - 기타(부적합 및 기타 행정조치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	150	6.1
6	108 - 농약잔류허용기준위반-식품	113	4.6
7	101 - 부패변질(폐사포함)-식품	107	4.4
8	117 - 일반성분-식품	106	4.3
9	113 - 착색료-식품	98	4.0
10	172 - 중금속-기구 또는 용기·포장	49	2.0

주: 1) 총 부적합 건수는 2,443건임.  
2) 1995년~2006.6까지의 누적자료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의 수입식품 전산망 DB 자료임.

표 8. 농·임·축·수산물의 부적합 원인

(기준: 1995년~2006.6. 누적자료, 단위: 건, %)

순위	부적합 사유코드 및 내용	건수	비율
1	116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식품	236	44.8
2	108 -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식품	96	18.2
3	101 - 부패변질(폐사포함)-식품	86	16.3
4	118 - 기타 규격 위반-식품	52	9.9
5	999 - 기타(부적합 및 기타 행정조치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	28	5.3
6	907 - 허용외 첨가물 함유(부적합 수입식품 재수입)	14	2.7
7	112 - 보존료-식품	4	0.8
8	102 - 이물혼입-식품	3	0.6
9	111 -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식품	3	0.6
10	103 - 유통기한경과-식품	1	0.2

주: 1) 총 부적합건수는 527건임.  
2) 1995년~2006.6까지의 누적자료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의 수입식품 전산망 DB 자료임.

표 9. 가공식품의 부적합 원인

(기준: 1995년~2006.6. 누적자료, 단위: 건, %)

순위	부적합 사유코드 및 내용	건수	비율
1	111 -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식품	516	32.1
2	118 - 기타규격 위반-식품	218	13.6
3	112 - 보존료-식품	209	13.0
4	116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식품	112	7.0
5	999 - 기타(부적합 및 기타 행정조치 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 되지 않은 경우)	103	6.4
6	117 - 일반성분-식품	100	6.2
7	113 - 착색료-식품	98	6.1
8	119 - 성분 또는 원료배합기준 위반-식품	45	2.8
9	179 - 타르색소-기구 또는 용기·포장	39	2.4
10	102 - 이물혼입-식품	29	1.8

주: 1) 총 부적합 건수는 1,607건임.  
2) 1995년~2006.6까지의 누적자료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의 수입식품 전산망 DB 자료임.

(4) 식품첨가물

<표 10>에는 식품첨가물의 부적합 사유가 10위까지 정리되어있다.

1순위는 식품첨가물 함량이 부적합 건이었고, 두번째는 순도, 기타 규격위반, 성상 위반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5) 기구 및 용기포장

<표 11>에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의 총 부적합 사유가 정리되어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부적합 사유는 총 12가지로 1순위는 중금속, 그 다음은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로 분석되었다.

(6) 건강기능식품

<표 12>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사유가 순위별로 정리되어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사유는 총 10가지로 나타났는데 1순위는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미생물 오염, 그 다음은 기타규격 위반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식품첨가물의 부적합 원인

(기준: 1995년~2006.6. 누적자료, 단위: 건, %)

순위	부적합 사유코드 및 내용	건수	비율
1	142 - 함량-식품첨가물	29	31.9
2	145 - 순도시험-식품첨가물	21	23.1
3	118 - 기타규격 위반-식품	15	16.5
4	143 - 성상-식품	5	5.5
5	146 - 강열감량-식품첨가물	4	4.4
6	999 - 기타(부적합 및 기타 행정조치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	4	4.4
7	117 - 일반성분-식품	3	3.3
8	111 -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식품	2	2.2
9	144 - 확인시험-식품첨가물	2	2.2
10	153 - 수분-식품첨가물	2	2.2

주: 1) 총 부적합건수는 91건임.  
2) 1995년~2006.6까지의 누적자료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의 수입식품 전산망 DB 자료임.

표 11. 기구 및 용기·포장의 부적합 원인

(기준: 1995년~2006.6. 누적자료, 단위: 건, %)

순위	부적합 사유코드 및 내용	건수	비율
1	172 - 중금속-기구 또는 용기·포장	48	32.7
2	176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기구 또는 용기·포장	30	20.4
3	175 - 증발잔류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21	14.3
4	148 - 증발잔류물-식품첨가물	13	8.8
5	118 - 기타규격 위반-식품	10	6.8
6	999 - 기타(부적합 및 기타 행정조치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	9	6.1
7	110 - 유해성금속(중금속)-식품	8	5.4
8	174 - 포름알데히드-기구 또는 용기·포장	4	2.7
9	101 - 부패변질(폐사포함)-식품	1	0.7
10	119 - 성분또는원료배합기준 위반-식품	1	0.7
11	178 - 염화비닐-기구 또는 용기·포장	1	0.7
12	181 - 형광증백제-기구 또는 용기·포장	1	0.7

주: 1) 총 부적합건수는 147건임.  
2) 1995년~2006.6까지의 누적자료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의 수입식품 전산망 DB 자료임.

표 12.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원인

(기준: 1995년~2006.6. 누적자료, 단위: 건, %)

순위	부적합 사유코드 및 내용	건수	비율
1	111 -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식품	13	27.1
2	118 - 기타규격 위반-식품	10	20.8
3	108 -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식품	8	16.7
4	999 - 기타(부적합 및 기타 행정조치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	6	12.5
5	142 - 함량-식품첨가물	4	8.3
6	117 - 일반성분-식품	3	6.3
7	119 - 성분 또는 원료배합기준 위반-식품	1	2.1
8	144 - 확인시험-식품첨가물	1	2.1
9	158 - 회분-식품첨가물	1	2.1
10	902 - 한글표시사항 미이행-기타 행정조치	1	2.1

주: 1) 총 부적합건수는 48건임.  
2) 1995년~2006.6까지의 누적자료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 (Help desk)의 수입식품 전산망 DB 자료임.

## 5. 정책제언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방안이 개별적으로 도출되어야 하지만 검사단계에서는 DB화된 누적자료의 부적합 사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검사 항목 및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sup>4)</sup>.

### 1) 품목군별 중점검사 항목

5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보면 우선 가공식품의 부적합 처분율이 67.2%로 가장 높아 검사 강화 대상 품목군이며, 그 다음은 농수축산물로 나타났다.

품목별 중점 검사항목을 살펴보면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부패 등이고, 가공식품은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 보존료 등이며, 식품첨가물은 함량, 순도, 규격 등이다.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이며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미생물, 규격, 잔류농약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품목군	중점 검사항목
농수축산물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부패
가공식품	미생물, 규격, 보존료
식품첨가물	함량, 순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류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
건강기능식품	미생물, 규격, 잔류농약

4) 수입식품은 수출전 단계, 검사단계, 유통단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2) 중점검사 항목별 중점 검사품목

#### (1) 농임축수산물

농·임·축·수산물의 중점 검사항목별 중점 검사품목을 보면 구기자, 황기, 황금, 당귀 등은 식품첨가물, 인삼, 영지버섯 등은 잔류농약 여부, 그리고 땅콩 등은 부패 여부를 중점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중점검사 항목	중점검사 품목
식품첨가물	구기자, 황기, 황금, 당귀, 도라지 등
잔류농약	인삼, 영지버섯, 고추, 복령, 생강 등
부패	땅콩 및 견과류, 도토리, 고사리, 양파 등

#### (2)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경우를 보면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등은 미생물을 중점검사하여야 한다.

중점검사 항목	중점검사 품목
미생물	천연향신료, 기타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규격	기타가공품,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우롱차, 번데기 병·통조림
보존료	기타가공품, 식초절임, 병조림 등

#### (3)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중점 검사항목별 중점 검사품목은 함량의 경우에 천연향신료를 제외한 천연

식품첨가물 등이다.

중점검사 항목	중점검사 품목
함량	천연식품첨가물(천연향신료 제외), 화학적 합성품
순도	화학적 합성품, 천연식품첨가물
규격	화학적 합성품(알긴산나트륨)

#### (4) 기구 및 용기포장류

기구 및 용기포장류의 중점 검사항목별 중점 검사품목을 보면 폴리프로필렌류, 도자기류는 중금속에 관한 검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점검사 항목	중점검사 품목
중금속	기구류 및 용기류 (폴리프로필렌류, 도자기류 등)
과망간산칼륨	기구류 및 용기류 (폴리프로필렌류, 애폭시·불소수지류 등)
증발잔류물	기구류 및 용기류 (합성수지제류, 애폭시수지류 등)

#### (5)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중점 검사항목별 중점 검사 품목은 규격의 경우에 인삼제품 및 농축인삼류이고, 글루코사민, 레시틴은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문 검 지

중점검사 항목	중점검사 품목
미생물	인삼제품, 홍국제품 등 (인삼농축액, 인삼분말, 홍국 등)
규격	인삼제품, 농축인삼류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등)
잔류농약	글루코사민, 레시틴, 로알제리 등 (글루코사민분말, 난황레시틴 등)